



2011년 11월 1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김정훈 ☎ 3276-6230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계량분석 | 노근환 ☎ 3276-6226
 파생상품 | 안 혁 ☎ 3276-6272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투자전략

‘문제야’는 떠나고... 이젠 문제를 해결할 때

• 경제분석

이탈리아 재정위기: 아시아 내수 성장 패러다임의 촉매

• 이머징마켓 동향

중화권 증시 동반 약세, H지수 5% 이상 급락
10월 지표, 점진적 완화 및 소프트랜딩 시사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인터로조 외 4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상사 외 9종목

• 산업/기업분석

CJ E&M, LS

• 스몰캡분석

KTcs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3(목)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11/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69.96	1,928.41	1,919.10	1,903.14	1,907.53	1,813.25	
	등락폭	-28.05	58.45	-9.31	-15.96	4.39	-94.28	
	등락종목	상승(상한)	269(7)	708(7)	400(8)	313(6)	393(4)	74(2)
		하락(하한)	565(0)	146(1)	415(0)	508(3)	419(3)	794(2)
	ADR	116.78	117.77	113.47	105.44	102.85	90.43	
	이격도	10 일	98.64	101.24	100.64	99.73	99.89	95.50
		20 일	100.77	103.45	102.53	101.39	101.36	96.37
	투자심리	60	60	5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28	461	343	399	414	392	
	거래대금 (십억 원)	6,206	7,090	5,072	5,156	5,475	7,678	
코스닥	코스닥지수	487.91	502.80	509.77	507.11	509.41	488.77	
	등락폭	-5.58	14.89	6.97	-2.66	2.30	-20.64	
	등락종목	상승(상한)	323(27)	840(26)	579(24)	321(15)	462(17)	116(18)
		하락(하한)	617(4)	122(0)	357(3)	608(5)	468(6)	863(10)
	ADR	124.53	125.54	120.96	112.88	109.11	96.49	
	이격도	10 일	99.24	101.82	102.88	102.05	102.27	98.29
		20 일	101.50	103.94	104.78	103.72	103.75	99.39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84	555	534	599	558	607	
	거래대금 (십억 원)	2,504	2,556	2,757	3,323	3,113	3,15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4,425.2	1,237.8	1,465.9	328.1	273.1	415.5	73.7	65.7	309.8	632.3
	매도	3,767.5	1,741.8	1,374.5	285.9	229.8	476.9	90.9	67.4	223.7	877.2
	순매수	657.6	-504.0	91.4	42.3	43.3	-61.4	-17.2	-1.7	86.2	-245.0
	11 월 누계	405.3	-763.6	533.3	43.8	164.4	-100.2	84.5	39.1	301.8	-175.0
	11 년 누계	373.4	-5,848.0	7,035.1	1,592.1	-1,411.4	-3,411.2	1,943.9	-1,778.9	10,100.6	-1,560.5
	코스닥	매수	2,950.1	95.1	104.1	11.6	14.2	47.8	8.6	4.4	17.5
매도		2,881.7	162.1	103.2	12.2	15.8	36.7	7.9	7.9	22.8	32.5
순매수		68.3	-67.0	0.9	-0.6	-1.6	11.2	0.7	-3.4	-5.3	-2.3
11 월 누계		-37.8	-141.0	237.2	18.9	42.3	90.9	34.9	15.0	35.2	-58.4
11 년 누계		300.3	-1,065.9	1,076.9	150.5	291.1	121.8	170.6	-114.1	456.9	-311.3

‘문제아’는 떠나고… 이젠 문제를 해결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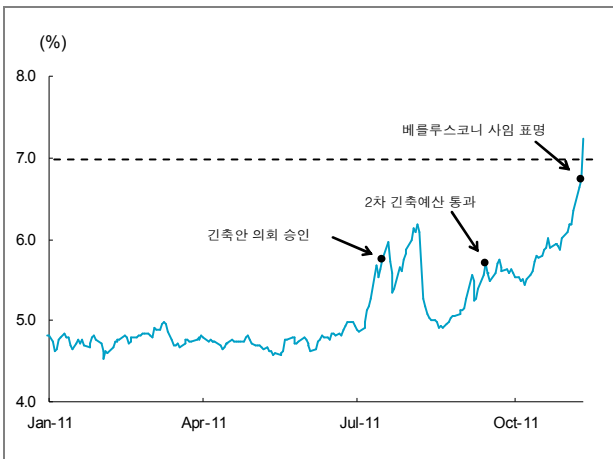
11월 월간 밴드	1,800-2,000pt
2011 연간 밴드	1,650-2,150pt
12MF PER	8.1배
12MF PBR	0.99배
Yield Gap	9.0%P

- ▶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하락 반전: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 이탈리아 국채 규모를 감안하면 ‘Too big to bail’
- ▶ ECB 국채매입은 시장심리를 안정에 긍정적, 이탈리아는 신속한 행동으로 화답해야

■ 다시 7% 아래로 내려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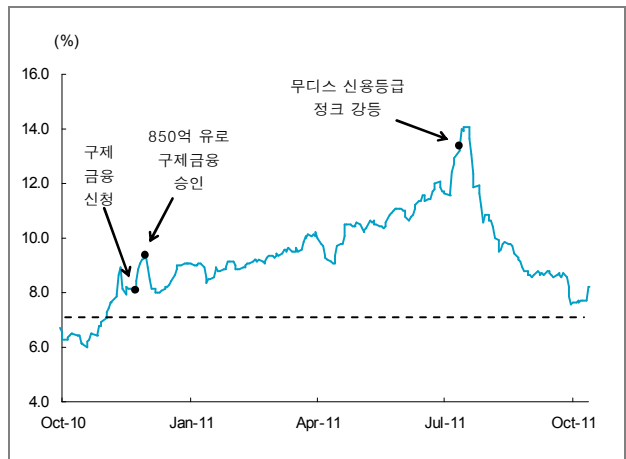
유럽 시간 지난 9일, 결국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마(魔)의 7% 선을 넘고 말았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락했으며, 이튿날 10일 KOSPI도 9월 23일 이후 최대폭인 4.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9일 당사 데일리 “이태리 국채 금리 7%가 중요하다”에서 밝힌 바대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담보능력 감소와 함께 유동성 감소 우려가 커진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국채 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로존 위기에서 이루어진 구제금융은 국채금리 7%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만큼,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이 아닌 불길한 숫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림 1]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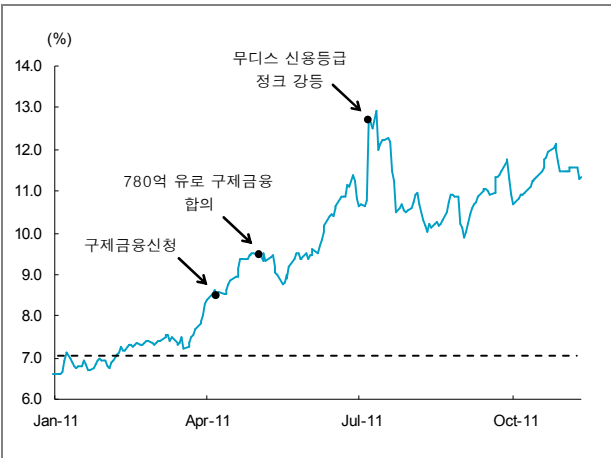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일랜드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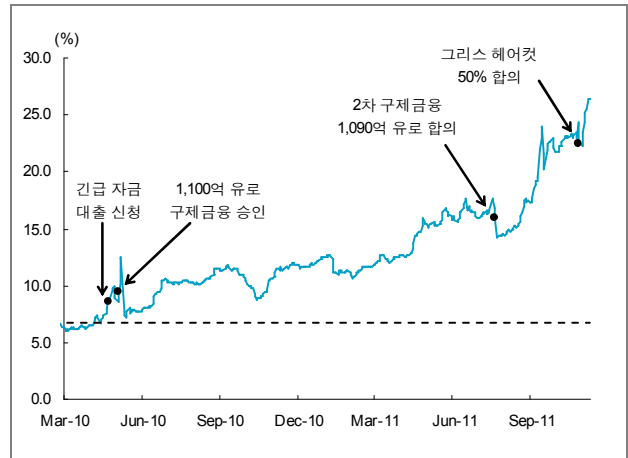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포르투갈 국채 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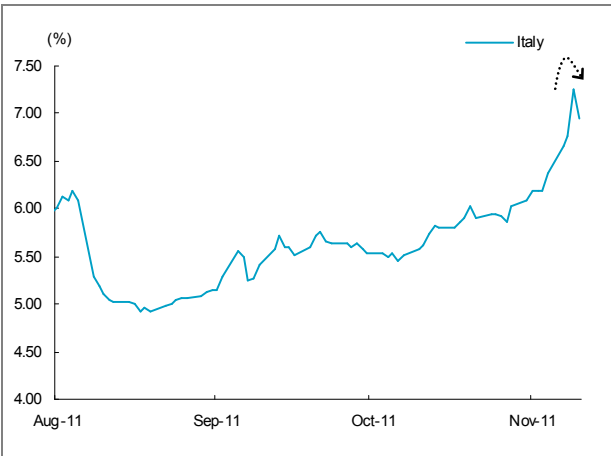
[그림 4] 그리스 국채 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각 언론,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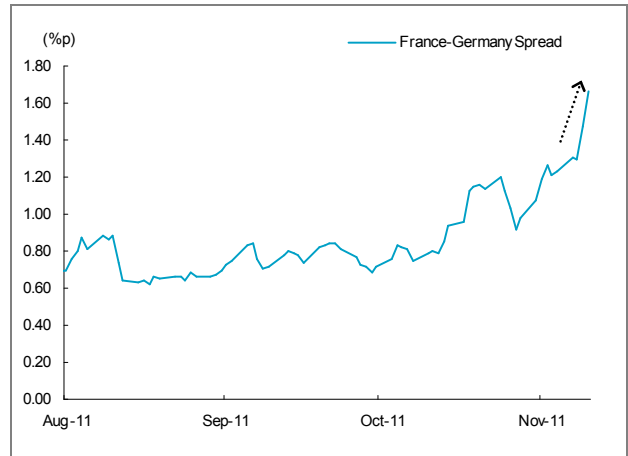
10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전일에 비해 하락하며 7%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전일대비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탈리아에 대한 우려를 기계적으로 7% 전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8월 이후 이탈리아 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8월 이후 佛국채-獨국채 10년물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Too big to bail”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스포트 라이트가 이탈리아로 옮겨왔다. 이는 단순히 유로존 위기국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제는 다른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국채 규모는 1조 9천억 유로 규모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국채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 그리고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국채 최대 보유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탈리아 위기 전염 차단 실패는 결국 유로존의 존립의 문제가 된다.

한편, EFSF가 진통 끝에 확대되었음에도, 유효규모를 감안하면 유사시 이탈리아를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이탈리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다면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프랑스의 신용등급도 위태로울 수 있다.

무디스는 10일 EFSF가 발행한 10년만기 30억 유로 채권에 대해 Aaa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EFSF 발행 채권의 등급 결정 요소는 무엇보다도 유로존 내 Aaa 등급 국가들에 대한 신용이 중요하다. 즉 Aaa 등급 국가들의 신용이 떨어지면 EFSF 채권도 downgrade 리스크에 노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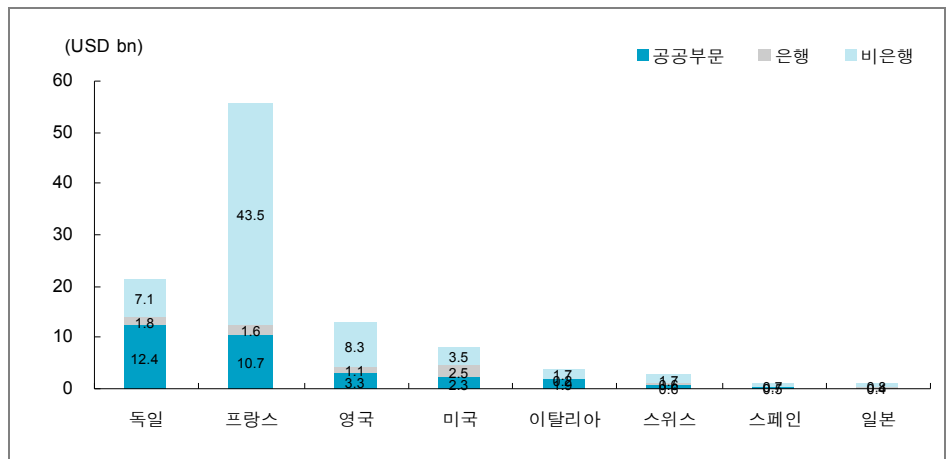
(일부발췌)

Moody's assigns Aaa rating to EFSF's new 10-year benchmark bond (2011.11.10)

TRANSITION / DOWNGRAD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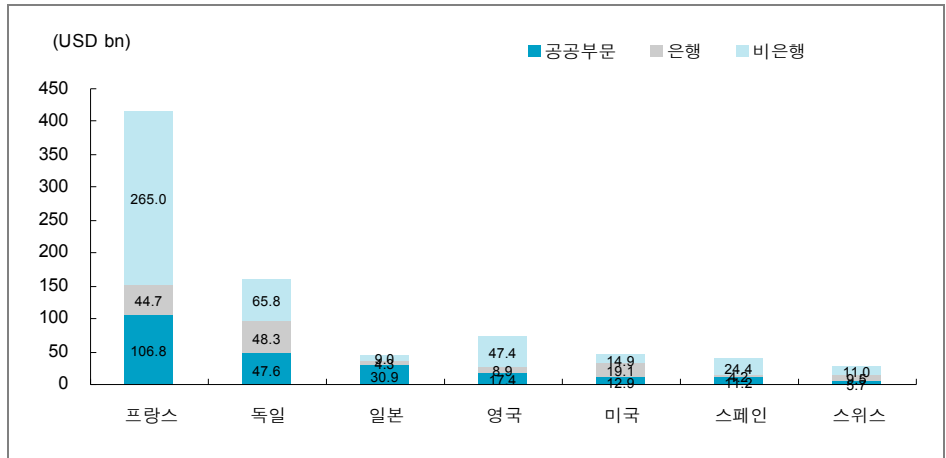
The creditworthiness of the issuance would be particularly sensitive to changes in the ratings of Aaa countries that contribute the largest amounts to the EFSF, i.e.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Moreover, a weakening of the euro area member states' commitment to the EFSF could have negative rating implications.

[그림 7] 對 그리스 주요 채권국 보유 규모



주: 2011년 6월 말 기준
 자료: BIS,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8] 對 이탈리아 주요 채권국 보유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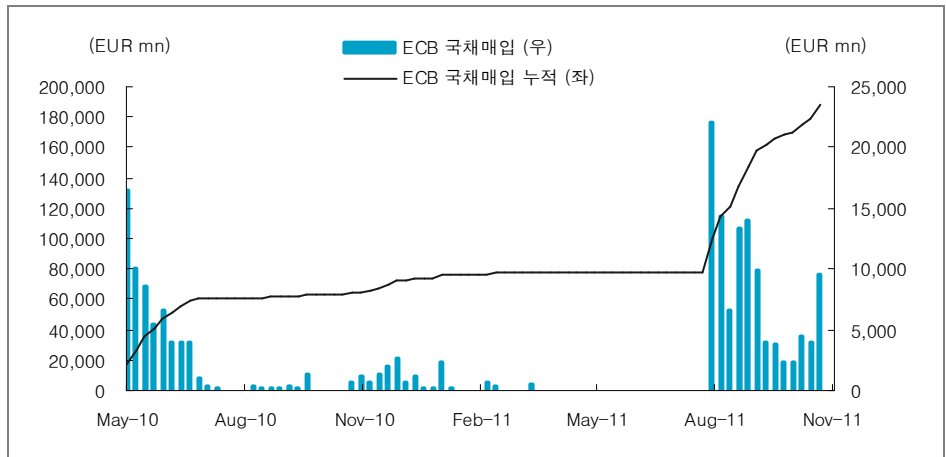


주: 2011년 6월 말 기준
 자료: BIS, Reuters, 한국투자증권

■ ECB 국채 매입과 더불어 이탈리아는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마리오 드라기 신임 ECB 총재는 유로존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ECB의 국채매입 규모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반전은 정국안정 기대감과 ECB의 국채 매입(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 스프레드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ECB의 국채 매입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 불안심리가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9] ECB의 국채 매입 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시장 일각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ECB가 무제한적인 ‘최종 대부자’가 되어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유로화 가치를 달러와 맞추어 절하시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과 같은 ‘핵심 국가’가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을 실시하고, 주변국가들은 긴축정책을 실시해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의 상황은 지급불능(Solvency)의 문제보다는 유동성(Liquidity)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을 내놓는 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유럽의 ‘문제아’라고까지 불리던 베를루스코니의 사임 소식에 시장이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은 베를루스코니 이후의 리더십이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11일과 12일로 예정된 경제개혁 방안 상하원 표결, 14일 예정된 5년물 국채 발행이 이탈리아와 관련해 주목할 이벤트이다.

[그림 10] 과거 10년간 이코노미스트誌에 나온 베를루스코니 커버스토리



자료: Economist, 한국투자증권

이탈리아 재정위기: 아시아 내수 성장 패러다임의 촉매

- ▶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는 그리스의 5배 이상, 조금만 부실화되더라도 충격 클 것
- ▶ EFSF와 IMF의 증액 등이 불가피할 것, 재정 긴축으로 유럽 경제 부진 장기화될 듯
- ▶ 내수 외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상황에 처한 아시아는 내수 부양에 나설 전망

■ 그리스에 비해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탈리아 재정 위기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 부도 위기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근심 거리로 떠올랐다.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에서 그리스보다 훨씬 양호하지만, 정부 부채가 그리스에 비해 5배 이상 더 많다. 따라서 이탈리아 국채의 10%가 부실화되는 것이 그리스 국채 50% 부실화되는 것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표〉 PIIGS 국가 주요 경제 지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GDP	(실질, %)	-5.0	0.4	0.6	-2.2	0.8
	(명목, 십억 달러)	312.0	222.3	2,245.7	241.9	1,536.5
재정수지	(% of GDP)	-6.9	-6.8	-2.6	-4.0	-4.4
	(십억 달러)	-21.5	-15.1	-58.4	-9.7	-67.6
정부부채	(% of GDP)	165.6	109.3	121.1	106.0	67.4
	(십억 달러)	516.7	243.0	2,719.5	256.4	1,035.6
경상수지	(% of GDP)	-8.4	1.8	-3.5	-8.6	-3.8
	(십억 달러)	-26.2	4.0	-78.6	-20.8	-58.4
총투자	(% of GDP)	12.4	10.0	19.9	17.6	21.8
	(십억 달러)	38.7	22.2	446.9	42.6	335.0
수출입	(수출, % YoY)	7.0	6.0	5.2	7.5	8.7
	(수입, % YoY)	-9.9	3.0	5.1	-3.2	2.1
소비자물가	(%)	2.9	1.1	2.6	3.4	2.9
실업률	(%)	16.5	14.3	8.2	12.2	20.7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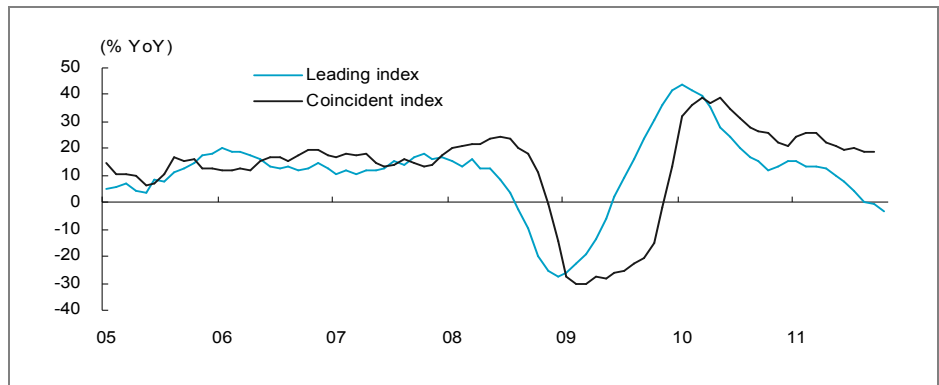
주: 수치는 2011년 전망치

이탈리아의 부채 위기가 가져올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 유럽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둔화는 불가피

첫째, 유럽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탈리아 부채 위기는 그 동안 그리스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유로지역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이탈리아의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이는 역으로, 부도 나기에는 이탈리아의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에서 보던 것과 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자금으로 이탈리아 국채의 부실화를 일부 막고, 또한 각국 정부는 손실이 예상되는 자국내 은행의 자본 확충에 자금을 투입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데 투입되고 나면, 경기 부양 등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해, 유로지역은 상당 기간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 KIS 수출선행지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아시아가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촉매 역할을 할 듯

둘째,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는 아시아의 내수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의 재정 긴축과 향후 예상되는 유로화 약세 등을 감안해 보면, 아시아는 더 이상 유럽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수 부양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률이 상당 폭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는 아시아 경제의 내수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는 수출 둔화를 심화시킴으로써 패러다임 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악재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그 악재를 계기로 아시아가 수출 일변도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확대에 나선다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적자와 아시아의 흑자라는 불균형을 바탕으로 굴러가던 세계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아시아가 소비를 늘리고 서구는 저축을 늘리면서 균형을 회복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아시아의 소비재 수요 확대가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중화권 증시 동반 약세, H지수 5% 이상 급락

- ▶ 중국, 10월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비 각각 15.9%, 28.7% 증가(직전치 17.1%, 20.9%)
- ▶ 중국, 10월 자동차판매 전년동월비 0.9% 감소. 연간 5% 성장을 달성 어려울 전망
- ▶ 홍콩 H지수 은행주 급락 주도. 골드만삭스가 공상은행 H주 24억주 매각 계획

하루만에 급락, 2,500p 하회
이탈리아 약세 및 수출 부진
으로 투자심리 위축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다시 2,500p 밑으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 급등으로 대외환경 악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된 데다 10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확인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민감주인 건설자재업종의 낙폭이 컸고 금속 가격 하락으로 관련주도 내렸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공상은행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은행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부동산개발사들의 부채비율이 11년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로 부동산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10월 자동차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자동차업종도 하락했다. 그 외 최근 크게 올랐던 미디어, 운송 업종에도 매물이 출회됐다.

H지수 5% 이상 급락
은행주 일제히 폭락
원자재, 에너지주도 약세

■ 홍콩 시장

H지수는 4% 이상 하락 출발 후 장 중 낙폭을 확대하며 5.7% 급락세로 마감했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 이상 상승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매매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공상은행 H주 지분 매각 계획과 HSBC의 실적 악화로 은행주가 일제히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중국의 수출 부진과 자동차판매 감소도 매도세를 부추겼다. 전 업종이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금융, 원자재, 에너지, 부동산업종의 낙폭이 컸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10(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479.54	-1.80	-1.14	0.46	-11.70
홍콩 H	10,300.18	-5.66	0.05	-2.02	-18.85
인도 SENSEX	17,362.10	-1.18	-0.68	-1.94	-15.34
러시아 RTS	1,505.89	-0.46	-1.33	-3.67	-14.93
브라질 보베스파	57,549.74	-2.50	0.40	-1.35	-16.96
베트남 VN	401.03	-1.03	-1.81	-4.70	-17.26
MSCI 이머징마켓	980.01	-1.07	0.62	-1.51	-14.88

주: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월 지표, 점진적 완화 및 소프트랜딩 시사

■ 중국 물가하락 배경과 전망? 식품가격 하락, 4%후반~5%초반 진입 예상

10월 중국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5.5%로 9월의 6.1%보다 0.6%p 낮아졌다. 시장예상치 5.4%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7월 6.5%를 정점으로 3개월째 하락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은 0.1%로 9월의 0.5%보다 0.4%p 하락해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의 31%를 차지하는 식재료 가격이 전월보다 0.2% 하락한 것이 물가상승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11~12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 후반~5%대 초반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 중국 긴축 완화될 것인가? 점진적 완화 지속, 기준을 인하 가능성 상승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핵심(Core) 소비자물가 및 서비스 소비자물가의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0.2%, 0.2%로 9월의 0.1%, 0.0%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광범위한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간 물가상승을 견인했던 식품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고려할 때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어음 발행금리 하락,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점진적 긴축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물지표 부진추세가 심화된다면 연내 기준율이 인하될 가능성도 높다.

■ 중국 실물경기 하강 속도 빠르나? 우려할 정도 아니나 이전보다 빨라졌다

10월에도 주요 실물경제지표의 둔화추세가 이어졌다. 고정자산투자를 제외한 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이 9월보다 낮아졌으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13.2%, 17.2% 증가했고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24.9% 증가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물경기 둔화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진 것이다.

■ 중국경제 하드랜딩 가능성은? 낮아졌다. 4Q 성장률 8%대로 하락 전망

시장컨센서스에 따르면 10월 수출 증가율은 16.1%로 9월의 17.1%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기에 따른 선진국 실물경기 위축의 영향은 이전보다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수출입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면 중국의 수출경기가 10월에 급격히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 및 내수지표와 10일 발표될 수출전망을 함께 고려한다면 4분기에 중국 경기가 하드랜딩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3분기에 9.1%를 기록했던 중국 실질GDP성장률이 8%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종목/테마	내 용
동양생명(082640) ▶14,200원(+5.97%)	인수·합병(M&A)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생명보험사에 대한 인수·합병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사의 안정성 및 성장성 메리트가 부각되며 견조한 오름세 - 최근 변경되거나 도입되는 정책들로 인해 내년 상반기 저축성(연금보험)보험 위주의 신계약 판매 호조 전망
신풍제약(019170) ▶4,830원(+6.86%)	뇌졸중 치료제 효과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현재 개발 중인 뇌졸중 치료제 후보물질인 'SP-8203'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발병 후 12시간 이후에 투여해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SP-8203'은 2008년 국내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해부터 세계 47개국에 개별 출원을 진행 중
효성오앤비(097870) ▶8,800원(+2.92%)	국제 쌀 가격 폭등 우려감에 강세 - 최근 태국의 흉수 및 미국 가뭄의 영향으로 국제 쌀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며 강세 - 당사는 국내 유기질 비료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정부의 농업분야 투자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기대
보해양조(000890) ▶10,950원(+12.08%)	액면분할 결정 소식에 이틀째 초강세 -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을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초강세 - 임건우 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 68억1,600만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을 무상 양도한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엘디티(096870) ▶4,130원(상한가)	갤럭시S2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 - 당사는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의 판매 호조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 - 갤럭시S2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 및 삼성과 애플의 태블릿PC 화질 경쟁 가열로 AMOLED구동칩 수요가 증가해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성우전자(081580) ▶3,450원(상한가)	3분기 실적 호조 및 SSD 카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한가 -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한 실적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카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더해지며 상한가 - 당사는 삼성전자에 SSD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흉수 피해로 하드디스크(HDD) 가격 상승함에 따라 SS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수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인트로조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인트로조 (119610)	11,400 (+1.8)	11,200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컬러렌즈 호조와 국내 원데이 렌즈 비중 확대에 따라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신규 시장/거래처 개척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예상 -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1,700 억원으로 매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7 조원 수준으로 매년 7%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국내 M/S 는 내년 1 월 원데이 컬러렌즈(클라렌 아이리스) 출시와 2012년 1분기 Capa 증설 효과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 - 2011 년 예상 EPS 기준 PER 은 9배 수준으로 경쟁사인 대만의 St. shine(17배 수준) 보다 현저한 저평가
엠에스오토텍 (123040)	5,100 (+1.4)	5,030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경량화와 관련한 핵심 제조공법인 핫스탬핑(Hot Stamping) 기술을 보유.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른 수혜 지속 전망 - 현대차그룹의 해외 현지공장 확장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도와 브라질에서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효과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속될 전망
액트 (131400)	2,975 (+17.8)	2,525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2배 이상 충분히 달성 가능. 3분기 매출액은 196억원(YoY +19.5%),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6억원(YoY +62.5%) 이상으로 예상 - 하이디스, 태양기전, 우리LED, 팬텍 등 기존에 비해 마진을 높은 매출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OPM은 전년도 7%에서 올해 13%까지 달성 가능할 전망
차이나킹 (900120)	3,000 (+17.2)	2,560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브랜드로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될 영생활력이 4분기(3~6월)의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안정권에 진입 - 동충하초 유통과 원강 및 영생활력의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종의 건강기능차를 출시해 신규 매출 기대
오스템임플란트 (048260)	10,750 (+32.7)	8,100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임플란트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과 작년 하반기 출시한 TS모델(단가 10% 인상)의 판매 호조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전망 -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이 40억원 이상 발생해 3분기 순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
에스엘 (005850)	25,650 (+6.9)	24,000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램프 국내 1위 업체로 현대/기아차 생산량 증가로 성장세 지속 - 헤드램프 고사양화에 따른 수혜와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사업 확대 기대 -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액트, 오스템임플란트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액트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차이나킹하이웨이에서 실시한 중국 현지 공장 방문 및 기업설명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상사 외 9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1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상사 (001120)	46,300 (-6.2)	49,350 (11/8)	13,562.0	222.5	313.5	8,110	5.7
- 연내 GS리테일(지분 32% 보유) IPO를 통한 구주매출로 3천원 수준의 현금 유입 예상되며, 지배주주 수익 기준 PER이 6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상존							
현대EP (089470)	5,840 (-5.3)	6,170 (10/28)	629.8	22.8	16.0	654	8.9
- 현대/기아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용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복합 PP(Polypropylene)관련 제품 M/S 1위인 업체로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른 수혜 지속 전망							
GKL (114090)	18,400 (-8.0)	20,000 (10/21)	547.5	145.9	75.4	1,220	15.1
- 환율상승, 홀드율(Hold rate) 개선과 함께 기저효과에 힘입어 3분기 및 4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52,000 (+19.5)	43,500 (10/18)	96.5	87.1	84.7	7,847	6.6
- 자회사 골드윈코리아(지분율 51%) 및 영원무역(지분율 50%)의 실적 개선 지속 전망							
현대중공업 (009540)	261,500 (-6.1)	278,500 (9/29)	25,117.9	3,047.9	3,229.5	52,693	5.0
-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비조선 부문의 수주 모멘텀을 주목.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71,700 (-0.3)	71,900 (9/29)	26,754.3	2,042.4	3,712.4	9,158	7.8
- 신형시장 매출 비중 확대, 'Value Car' 이미지 강화, 디자인 혁신, 원화약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9,680 (+23.5)	7,840 (9/29)	341.2	41.4	40.1	1,280	7.6
- 삼성전자 내 터치패널 공급업체 중 중대형 터치스크린 부문에서 경쟁우위 확보 - 갤럭시탭2 출시,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등으로 3분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풍산 (103140)	28,400 (+11.8)	25,400 (9/26)	2,599.0	190.2	177.4	6,333	4.5
-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둔화를 감안해도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 방산 매출 증가에 따른 4분기 이후 수익성 개선 기대 유효							
대한항공 (003490)	43,150 (-0.2)	43,250 (9/23)	12,494.1	753.7	305.9	4,442	9.7
- 국제선 여객 및 환승 수요 호조세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화물부문의 경쟁 우위와 운항 효율성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성 확보							
S&T대우 (064960)	33,000 (-2.7)	33,900 (8/24)	776.5	60.1	68.6	4,693	7.0
- 한국GM 및 GM Global의 판매 회복 및 현대차/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를 강제 지속, 방산사업 매출 본격화에 따른 하반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중공업, 기아차, 대한항공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에 대한 유통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51,000원(하향)
종가 (11/9): 38,600원

컨텐츠 경쟁력 강화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 What's new: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CJ E&M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매출액은 3,16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34.3%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1) 방송 제작비 급증, 2) 신규 게임 런칭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 3) 일부 영화의 흥행 실패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 Positives: 강해지는 컨텐츠의 힘 - 1) 광고수익 증가, 2) 컨텐츠 판매 증가

우리는 CJ E&M의 3분기 실적을 세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 3분기는 광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스타K3 등 영향력 있는 컨텐츠 증가로 광고수익은 1,0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 늘어났다. 4개의 주요 채널의 평균 광고비도 35.8 증가했다. 2) CJ E&M의 컨텐츠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판매가 증가하고, 영화의 부가관련 수익이 늘었다. 특히 영화 부가관련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78.6% 증가했다. 3) 뮤지컬, 콘서트 확대로 공연매출액도 전년동기 대비 105.8% 늘었다.

■ Negatives: 방송 제작비 증가, 게임 매출 감소

CJ E&M은 종합편성채널 진입 이전에 방송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4분기와 1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과 공동 서비스 중인 서든어택의 경우 아이템 구입 빈도가 높은 유저가 상당 부분 넥슨으로 이동하면서 관련 매출액이 감소했다. 신규 게임 약 10개가 12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유효하나 단기 이익 감소 불가피, 목표주가 하향

CJ E&M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하지만 방송 제작비 증가와 게임 이익 감소를 반영해 11년, 12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3.7%, 14.6% 낮춰 목표주가를 57,000원에서 51,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BITDA에 목표 EV/EBITDA 6.1배(해외 미디어 업체의 12개월 forward 평균 5%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목표주가 하향에도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년 이후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11년부터 향후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연평균 9.6%, 33.6%, 2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자체 제작 강화로 방송 경쟁력이 높아지고 디지털 방송 가입자가 늘어 광고 및 수신료수익이 증가하고, 2) 중장기적으로 전사업 라인업 확대로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둘째, VoD,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셋째, 12년부터 다수의 신규 게임이 출시돼 게임 부문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십억원, %, %p)

	3Q11P			컨센서스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23.5	316.9	(2.1)	328.9	(1.7)	NA	1,114.6	1,256.7
영업이익	21.5	13.0	(39.6)	25.5	(63.2)	NA	84.2	123.2
영업이익률(%)	6.7	4.1	(38.4)	7.8			7.6	9.8
세전이익	21.2	8.6	(59.4)		(71.9)	NA	77.2	
순이익	22.3	11.0	(50.8)	20.4	(67.1)	NA	82.6	89.4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S(006260)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원(하향)

종가(11/9): 76,100원

적자 전환, 장마가 아닌 소나기

■ What's new : 어닝 쇼크, 그러나 주요 원인은 평가손실

3분기에 지배지분순이익이 9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 추정치가 653억원, 시장 추정치가 559억원이었으니 어닝 쇼크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크게 준다. LS전선, LS산전, LS엠트론 등 연결대상 자회사의 합계 외환평가손실과 지분법 대상인 LS니꼬동의 지분법(지분율 50.1%)을 고려한 외환평가손실을 합하면 1,65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동 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손자회사인 미국의 Superior Essex의 재고평가손실(저가법) 398억원도 LS전선을 통해 LS 연결 실적에 반영되어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동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 총 2,052억원이 LS의 연결 세전이익에 계상된 것이다. 3분기 LS 연결 세전이익이 1,227억원 적자이므로 위의 요인을 제거할 경우, 연결 세전이익은 742억원, 지배지분순이익은 556억원이다. 3분기 적자는 실제 영업 상황보다는 달러와 동에 대한 평가손실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Positives : 4분기엔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에 대규모 평가손실을 발생시켰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 가격도 반등했다. 3분기말 대비 원/달러 환율은 60원 하락했고, 동 가격은 톤당 822달러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으로 LS 연결 달러 exposure 14.8억달러를 반영하면 4분기에는 외환평가이익 870억원이 발생한다. Superior Essex의 경우에는 재고평가이익으로 130억원이 계상된다. 합치면 4분기에는 1,000억원의 이익이 원/달러 환율과 동 가격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반영하면 4분기 지배지분순이익은 1,370억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4분기 시장 추정치는 764억원에 불과하다.

■ Negatives : 환율과 동 가격 변동에 좌우되는 실적은 약점

환율과 동 가격 변동에 의해 실적이 연동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을 극명히 드러냈다. 특히, LS니꼬동은 원/달러 환율, Superior Essex는 동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연동된다.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두 가지 변수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다.

■ 결론 : 약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 향후 쏟아질 호재에 주목할 시기

3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우나, 이미 주가가 올해 최고치인 125,000원 대비 39% 하락해 약재는 다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LS전선은 수익성 회복, LS산전은 성수기 진입, LS엠트론은 전지박 생산 능력 확대, LS니꼬동은 제련수 수료 상승 등 호재가 다양하다.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단 목표주가는 변수에 취약한 실적을 고려해 2012년 EPS 전망을 14% 내렸고,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130,000원(목표 PER 12배)으로 12% 하향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1P				증감률		2011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5	-	-	-	-	-	220	-
영업이익	69	-	-	-	-	-	193	-
영업이익률(%)	92	-	-	-	-	-	88	-
세전이익	68	-	-	-	-	-	189	-
순이익	65	(95)	NA	56	NA	NA	178	269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cs(0588500)

종가(11/10): 2,050원

수익, 자산가치, 배당수익률 면에서 매력적인 주가수준

■ 토탈 컨택센터 서비스 국내 1위 업체

114번호안내(우선번호안내 포함), Olleh 고객센터, 컨택센터, 유무선통신서비스, CS 전문가육성 등의 사업을 아우르는 토탈 컨택센터 업체인 동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2010년 9월 거래소시장에 상장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사업별 매출비중은 Olleh 고객센터 46%, 114번호안내(우선번호안내 포함) 25%, 컨택센터 13%, 유통사업 15% 등이다. 컨택센터 부문의 경우 최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컨택센터 등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동사의 주요 고객들인 공기업, 통신사 및 금융권 등은 고객정보의 관리가 비용 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동사가 받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5년 300억원 매출을 목표로, 올해 9월 SMC(small enterprise marketing care, 소상공인마케팅케어)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개시하는 등 CS아카데미와 더불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2011년 실적 전망: 매출 3,800억원(+7% YoY), 영업이익 240억원(+30% YoY)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8%, 16% 증가한 2,850억 및 20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내부구조 효율화에 따른 관리 비용절감 효과가 올해를 기점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재수주율 100% 달성에 성공한 가운데, 1) 기존 고객들의 수요 증가로 상담사 좌석수가 늘어났으며, 2) Olleh/Show 고객센터,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등의 매출이 증가세에 있어 올해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4%, 29.7% 증가한 3,800억원, 24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 동사의 매출 성장률은 올해보단 부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2012년 동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금년에 비해 각각 5.3%, 6.9% 증가한 4,000억원, 256억원이다. 한편 순이익은 전년대비 7% 증가한 21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 수익, 자산가치, 배당수익률 모든 면에서 매력적인 주가수준

올해 예상 이익 기준 동사의 PER은 4.7배, 내년 기준으로는 4.2배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염창동 서울 사옥(장부가 기준 약 140억원) 및 현금성자산(2011년 3분기말 기준 약 795억원)이 현재 시가총액인 953억원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지난해 자사주 120만주 이익소각 및 현금배당(주당 35원) 등을 통한 동사의 배당성향은 약 26% 였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배당성향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소각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배당성향이 올해에도 이어질 경우 현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5.4% 수준에 달해 연말에 다가서고 있는 지금,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매출액 (십억원)	증감률 (%)	영업이익 (십억원)	증감률 (%)	순이익 (십억원)	증감률 (%)	EPS (원)	ROE (%)	부채비율 (%)
2008A	210.3	8.5	3.3	(55.3)	1.0	(85.9)	246	1.4	42.9
2009A	245.2	16.6	12.4	271.3	12.3	1,151.9	3,072	16.2	59.1
2010A	353.9	44.4	18.5	49.3	15.2	23.3	355	15.5	50.1
2011F	380.0	7.4	24.0	29.7	19.6	29.0	439	15.9	49.0
2012F	400.0	5.3	25.6	6.9	21.0	7.1	491	14.8	45.7

* 상기 보고서는 2011년 1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3(목)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11/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69.96	1,928.41	1,919.10	1,903.14	1,907.53	1,813.25	
	등락폭	-28.05	58.45	-9.31	-15.96	4.39	-94.28	
	등락종목	상승(상한)	269(7)	708(7)	400(8)	313(6)	393(4)	74(2)
		하락(하한)	565(0)	146(1)	415(0)	508(3)	419(3)	794(2)
	ADR	116.78	117.77	113.47	105.44	102.85	90.43	
	이격도	10 일	98.64	101.24	100.64	99.73	99.89	95.50
		20 일	100.77	103.45	102.53	101.39	101.36	96.37
	투자심리	60	60	50	50	50	40	
	거래량 (백만 주)	428	461	343	399	414	392	
거래대금 (십억 원)	6,206	7,090	5,072	5,156	5,475	7,678		
코스닥	코스닥지수	487.91	502.80	509.77	507.11	509.41	488.77	
	등락폭	-5.58	14.89	6.97	-2.66	2.30	-20.64	
	등락종목	상승(상한)	323(27)	840(26)	579(24)	321(15)	462(17)	116(18)
		하락(하한)	617(4)	122(0)	357(3)	608(5)	468(6)	863(10)
	ADR	124.53	125.54	120.96	112.88	109.11	96.49	
	이격도	10 일	99.24	101.82	102.88	102.05	102.27	98.29
		20 일	101.50	103.94	104.78	103.72	103.75	99.39
	투자심리	6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84	555	534	599	558	607	
거래대금 (십억 원)	2,504	2,556	2,757	3,323	3,113	3,15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4,425.2	1,237.8	1,465.9	328.1	273.1	415.5	73.7	65.7	309.8	632.3
	매도	3,767.5	1,741.8	1,374.5	285.9	229.8	476.9	90.9	67.4	223.7	877.2
	순매수	657.6	-504.0	91.4	42.3	43.3	-61.4	-17.2	-1.7	86.2	-245.0
	11 월 누계	405.3	-763.6	533.3	43.8	164.4	-100.2	84.5	39.1	301.8	-175.0
	11 년 누계	373.4	-5,848.0	7,035.1	1,592.1	-1,411.4	-3,411.2	1,943.9	-1,778.9	10,100.6	-1,560.5
코스닥	매수	2,950.1	95.1	104.1	11.6	14.2	47.8	8.6	4.4	17.5	30.2
	매도	2,881.7	162.1	103.2	12.2	15.8	36.7	7.9	7.9	22.8	32.5
	순매수	68.3	-67.0	0.9	-0.6	-1.6	11.2	0.7	-3.4	-5.3	-2.3
	11 월 누계	-37.8	-141.0	237.2	18.9	42.3	90.9	34.9	15.0	35.2	-58.4
	11 년 누계	300.3	-1,065.9	1,076.9	150.5	291.1	121.8	170.6	-114.1	456.9	-311.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0,852	금융업	-23,553
전기,전자	5,146	화학	-18,447
보험	4,186	운수장비	-12,800
한국타이어	17,761	현대중공업	-12,069
대림산업	7,828	OCI	-10,323
SK	5,647	한화케미칼	-9,733
NHN	5,362	SK텔레콤	-8,922
엔씨소프트	4,677	LG생활건강	-8,714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8,796	전기,전자	-5,406
보험	6,211	금융업	-2,900
전기가스업	5,976	증권	-2,286
한국타이어	11,515	현대중공업	-13,729
현대모비스	8,299	한화케미칼	-10,541
KT	7,235	금호석유	-6,318
현대위아	6,584	SK C&C	-5,511
POSCO	6,543	LG디스플레이	-4,70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6,730	금융업	-5,617
전기,전자	2,494	화학	-3,072
철강및금속	1,998	서비스업	-2,344
삼성전자	4,031	삼성물산	-4,186
현대차	2,960	KB금융	-3,780
POSCO	2,531	제일모직	-1,810
한국타이어	1,395	SK텔레콤	-1,786
만도	1,325	KT&G	-1,54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9,800	금융업	-10,969
전기,전자	11,714	증권	-5,214
운수장비	11,408	철강및금속	-2,933
한국타이어	15,803	OCI	-8,800
삼성전자	10,182	KB금융	-8,173
현대차	8,857	한화케미칼	-3,066
기아차	8,115	현대중공업	-2,684
호남석유	6,287	하이닉스	-2,58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0,309	금융업	-44,877
서비스업	38,686	운수장비	-20,186
운수장비	25,037	증권	-10,597
삼성전자	64,823	OCI	-29,057
한국타이어	59,310	한화케미칼	-28,979
기아차	26,888	KB금융	-28,577
POSCO	16,000	현대중공업	-17,313
대림산업	15,173	금호석유	-15,192
NHN	14,436	LG디스플레이	-13,366
현대위아	9,115	S-Oil	-12,737
한국전력	7,912	SK텔레콤	-11,753
KT	7,673	신한지주	-11,636
삼성엔지니어링	6,754	LG생활건강	-9,544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제조업	17,805	화학	-189,061
음식료품	4,082	전기,전자	-168,092
의약품	3,674	서비스업	-63,083
LG생활건강	21,150	한국타이어	-99,504
KT&G	17,650	OCI	-67,829
신세계	9,371	삼성전자	-67,244
KB금융	7,484	하이닉스	-46,235
현대차	5,783	현대중공업	-25,171
SK C&C	5,466	SK	-22,421
현대해상	5,099	현대건설	-21,857
SK텔레콤	4,334	삼성SDI	-17,538
코오롱인더	4,010	삼성물산	-16,602
현대미포조선	3,384	NHN	-15,39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9,928	반도체	-4,123
디지털컨텐츠	3,173	IT부품	-1,817
방송서비스	2,879	농업	-1,364
다음	9,357	서울반도체	-2,800
CJ오쇼핑	1,688	인터플렉스	-2,018
위메이드	1,294	농우바이오	-1,364
GS홈쇼핑	1,191	이엘케이	-1,092
에스엠	755	차바이오앤	-98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670	제약	-6,412
금속	1,756	반도체	-4,696
방송서비스	1,652	전문기술	-3,553
에스에프에이	1,851	셀트리온	-6,387
CJ오쇼핑	1,522	서울반도체	-5,634
포스코컴텍	926	CJ E&M	-3,264
인터플렉스	866	게임빌	-695
성광벤드	600	하나투어	-33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14	IT부품	-1,096
사업지원	264	제약	-718
방송서비스	156	기계,장비	-534
네패스	486	실리콘웍스	-1,324
심텍	426	멜파스	-1,269
컴투스	298	셀트리온	-718
하나투어	264	아바코	-487
크루셜텍	167	인프라웨어	-320

보 협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2,921	전문기술	-2,652
금속	587	반도체	-1,574
기계,장비	227	제약	-585
에스맥	1,365	CJ E&M	-2,893
이녹스	1,222	셀트리온	-1,495
씨젠	1,014	원익IPS	-1,121
위메이드	951	JCE	-911
크루셜텍	664	서울반도체	-62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2,071	제약	-11,123
방송서비스	5,138	반도체	-10,315
디지털컨텐츠	4,567	전문기술	-7,708
다음	11,585	셀트리온	-11,465
CJ오쇼핑	3,541	서울반도체	-8,270
네오위즈게임즈	3,351	CJ E&M	-7,309
GS홈쇼핑	1,524	실리콘웍스	-2,244
크루셜텍	1,455	농우바이오	-1,844
골프존	1,452	이엘케이	-1,746
이녹스	1,423	원익IPS	-1,402
에스맥	1,330	인터플렉스	-1,056
위메이드	1,302	차바이오앤	-997
씨젠	1,281	셀트리온제약	-95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2,755	제약	-18,891
출판,매체복제	257	반도체	-13,566
종이,목재	192	IT부품	-6,759
인프라웨어	2,258	셀트리온	-15,461
원익IPS	1,746	서울반도체	-11,194
게임빌	1,616	다음	-4,351
케이비티	976	실리콘웍스	-4,296
STS반도체	967	성우하이텍	-3,493
안철수연구소	660	GS홈쇼핑	-2,166
심텍	463	3S	-2,166
젬백스	436	CJ오쇼핑	-2,074
태광	381	CJ E&M	-2,052
시그네틱스	353	인터플렉스	-1,97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KCC	11 일	SK네트웍스	15 일
LG하우시스	11 일	오리온	13 일
SBS	8 일	유니온스틸	10 일
베이직하우스	7 일	퍼시스	10 일
유한양행	6 일	현대증권	8 일
카프로	6 일	무림P&P	8 일
코오롱	5 일	휴켄스	8 일
롯데제과	5 일	넥센타이어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빛방송	21 일	태광	9 일
이트레이드증권	16 일	KCC건설	8 일
네오위즈게임즈	11 일	덕산하이메탈	7 일
하이룩코리아	8 일	원익IPS	3 일
에스에프에이	8 일	평화정공	3 일
서부T&D	7 일	파트론	3 일
CJ오쇼핑	7 일	시그네티스	2 일
테크노세미컴	7 일	SK브로드밴드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국타이어	302,839	현대차	112,651
삼성전자	186,386	현대모비스	62,895
SK이노베이션	87,093	LG	42,020
기아차	59,461	LG생활건강	37,934
호남석유	56,515	삼성엔지니어링	31,224
현대위아	56,386	롯데쇼핑	29,324
두산중공업	42,028	LG디스플레이	24,597
LG디스플레이	35,967	현대해상	23,27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에프에이	19,017	덕산하이메탈	17,663
다음	18,323	게임빌	12,567
골프존	17,174	원익IPS	6,506
CJ오쇼핑	10,657	AP시스템	6,284
에스엠	9,295	메디포스트	4,682
컴투스	7,368	젬백스	3,932
위메이드	6,102	네오위즈게임즈	3,866
서울반도체	4,977	태광	3,58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보험	17,394	3,666	21,060
전기가스업	9,647	2,917	12,564
의약품	1,744	3,674	5,417
현대차	6,506	5,783	12,289
현대위아	9,115	1,812	10,927
한국전력	7,912	2,788	10,700
대한생명	6,462	781	7,243
현대백화점	3,851	2,635	6,485
대우인터내셔널	2,959	3,005	5,964
강원랜드	5,263	426	5,690
현대해상	70	5,099	5,169
현대글로벌비스	3,202	1,291	4,493
우리투자증권	3,543	896	4,438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소프트웨어	1,161	2,755	3,916
출판,매체복제	801	257	1,059
통신서비스	535	99	634
신택	1,068	463	1,531
에스맥	1,330	7	1,337
네패스	900	320	1,220
파트론	905	27	932
태광	485	381	866
에스엠	593	118	711
성광벤드	581	45	627
컴투스	559	9	568
드래곤플레이	514	53	567
하림	489	10	49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진전기	15 일	롯데삼강	14 일
오리온	13 일	KCC	10 일
경방	11 일	삼광유리	9 일
대한항공	10 일	하이트홀딩스	8 일
유니온스틸	10 일	두산	8 일
롯데쇼핑	10 일	울촌화학	8 일
LG생명과학	10 일	삼성테크윈	7 일
동국제강	9 일	한진해운홀딩스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큐렉소	8 일	동서	28 일
원익IPS	7 일	GS홈쇼핑	18 일
메가스터디	7 일	비에이치아이	12 일
STS반도체	4 일	위메이드	11 일
KH바텍	4 일	동양시멘트	9 일
덕산하이메탈	4 일	에스에프에이	9 일
모두투어	4 일	하이룩코리아	8 일
차바이오앤	4 일	태산엘시디	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하이닉스	-136,387	한국타이어	-439,606
롯데쇼핑	-61,429	현대중공업	-84,076
현대모비스	-57,729	삼성전자	-75,360
대한항공	-45,863	OCI	-72,218
OCI	-42,851	신한지주	-70,962
KB금융	-42,442	하이닉스	-59,707
CJ제일제당	-38,859	POSCO	-31,768
SK텔레콤	-30,371	삼성전자우	-28,115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1,828	서울반도체	-29,373
셀트리온	-8,562	실리콘웍스	-14,266
농우바이오	-6,704	골프존	-12,999
메디프론	-6,010	에스에프에이	-12,515
이엘케이	-4,786	성우하이텍	-7,701
원익IPS	-3,270	CJ오쇼핑	-6,372
엘엠에스	-3,256	성용광전투자	-6,267
JCE	-3,177	비에이치아이	-5,8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화학		-6,001	-189,061
금융업		-44,877	-1,381
운수창고		-20,186	-7,218
OCI		-29,057	-67,829
하이닉스		-9,364	-46,235
현대중공업		-17,313	-25,171
한화케미칼		-28,979	-6,966
S-Oil		-12,737	-13,425
삼성물산		-9,439	-16,602
현대건설		-1,971	-21,857
신한지주		-11,636	-9,112
LG디스플레이		-13,366	-6,626
SK이노베이션		-2,162	-12,370
합	계		

KOSDAQ			
종	목	기	관
계약		-11,123	-18,891
반도체		-10,315	-13,566
전문기술		-7,708	-2,638
셀트리온		-11,465	-15,461
서울반도체		-8,270	-11,194
CJ E&M		-7,309	-2,052
실리콘웍스		-2,244	-4,296
성우하이텍		-18	-3,493
인터플렉스		-1,056	-1,976
이엘케이		-1,746	-1,157
농우바이오		-1,844	-221
멜파스		-498	-1,051
차바이오앤		-997	-286
합	계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하이닉스	35	786	
대우증권	55	581	
삼성전자	0	350	
현대차	1	242	
POSCO	0	163	
SK텔레콤	1	157	
SK이노베이션	1	114	
호텔신라	2	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삼천당제약	0	0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9,863	3,782,623	
삼성전자	2,273	2,239,277	
OCI	4,865	1,050,785	
현대차	3,028	711,546	
현대중공업	2,136	605,499	
하이닉스	27,194	599,638	
삼성전기	6,830	580,546	
LG전자	8,778	554,7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436	532,048	
서울반도체	5,639	138,163	
네오위즈게임즈	789	55,700	
원익IPS	4,262	37,119	
메가스터디	221	26,024	
덕산하이메탈	768	22,161	
OCI머티리얼즈	208	19,388	
태웅	500	17,21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5,421	증권	-2,023
화학	4,336	운수장비	-1,312
금융업	1,684	철강및금속	-1,074
LG전자	3,409	한일이화	-1,846
한화케미칼	1,909	우리투자증권	-1,458
케이피케미칼	1,251	POSCO	-674
우리금융	1,226	현대모비스	-558
두산인프라코어	1,175	대한생명	-420
하이닉스	1,107	대우건설	-412
쌍방울	899	삼성증권	-382
삼성SDI	875	두산중공업	-304
KT	724	대우증권	-294
금호타이어	617	현대제철	-29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910	디지털컨텐츠	-167
기계,장비	111	전문기술	-147
반도체	109	오락,문화	-96
셀트리온	736	iMBC	-186
원익IPS	203	JYP Ent.	-143
오성엘에스티	192	아미노로직스	-137
바이넥스	130	파라다이스	-96
서울반도체	112	다원시스	-71
크루셜텍	90	디지털시스템	-48
휴맥스	90	에버다임	-44
이녹스	63	차바이오앤	-43
이지바이오	58	하나투어	-38
SDN	50	코리아나	-3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11/10(목)
외국인	-5,848.0	-763.6	-550.2	60.2	134.8	24.1	-267.7	-504.0
기관계	7,035.1	533.3	431.5	462.6	-19.7	-65.6	-34.6	91.4
(투신)	-3,411.2	-100.2	-5.9	159.9	13.9	-95.8	-20.1	-61.4
(연기금)	10,348.9	266.1	158.1	98.7	16.8	11.9	-6.9	38.8
(은행)	-1,778.9	39.1	27.9	14.4	3.7	7.7	3.8	-1.7
(보험)	-1,411.4	164.4	166.3	124.1	-39.8	18.8	19.8	43.3
개인	373.4	405.3	-236.2	-822.3	96.2	-107.1	-60.6	657.6
기타	-1,560.5	-175.0	354.9	299.5	-211.2	148.6	362.9	-245.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1/03(목)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KOSPI	1,124.47	1,682.77	2,051.00	1,869.96	1,928.41	1,919.10	1,903.14	1,907.53
고객예탁금	9336.3	12072.0	14068.5	20482.8	19983.3	19390.9	20112.6	19773.1
(증감액)	-746.3	-714.3	-228.9	-38.8	-499.5	-592.4	721.7	-339.5
(회전율)	46.9	52.6	51.5	43.1	48.8	41.7	42.7	47.3
실질예탁금 증감	-624.7	-551.4	-655.2	-101.8	-357.0	-128.6	-157.1	-310.7
신용잔고	1502.0	4359.5	5938.3	4411.1	4465.4	4424.6	4474.8	4507.9
미수금	145.1	240.2	192.3	209.7	183.6	228.8	167.1	165.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03(목)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전체 주식형	103,894	-1,477	-93	11	13	-98	18	-150
(ex. ETF)		-4,516	-184	6	9	-66	14	-112
국내 주식형	72,009	4,848	-33	18	25	-92	23	-131
(ex. ETF)		1,791	-124	13	21	-60	19	-93
해외 주식형	31,885	-6,324	-60	-7	-12	-6	-5	-18
(ex. ETF)		-6,308	-60	-7	-12	-6	-5	-18
주식 혼합형	12,164	408	18	0	6	18	-5	0
채권 혼합형	19,274	-291	-81	-18	-3	-53	-22	-19
채권형	46,717	-6,091	64	-67	52	-5	-10	37
MMF	67,932	-217	974	2,103	625	-749	-1,101	-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11/10(목)
한 국	-4,540	-2,333	-485	56	121	22	-239	-444
대 만	-8,820	-622	-282	163	77	-51	-51	-421
인 도	421	-1,156	146	44	-	102	-	-
인도네시아	2,399	-28	65	69	40	-15	94	-123
태국	-170	-551	-56	21	4	-43	-37	-
남아공	-2,229	-69	69	34	11	-11	34	-
필리핀	527	68	22	8	-	3	7	4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0년	11/03(목)	11/04(금)	11/07(월)	11/08(화)	11/09(수)	11/10(목)
회사채 (AA-)	4.27	4.27	4.27	4.25	4.24	4.23	4.18
회사채 (BBB-)	10.26	10.18	10.18	10.15	10.11	10.08	10.02
국고채 (3년)	3.38	3.43	3.43	3.41	3.39	3.38	3.33
국고채 (5년)	4.08	3.54	3.55	3.54	3.52	3.51	3.47
국고채 (10년)	4.52	3.81	3.83	3.83	3.79	3.78	3.76
미 국채 (10년)	3.36	2.07	2.03	2.04	2.08	1.96	-
일 국채 (10년)	1.13	1.00	0.99	1.00	0.98	0.98	-
원/달러	1,134.80	1,129.90	1,110.70	1,116.90	1,121.00	1,117.40	1,134.20
원/엔	1,392.56	1,449.00	1,420.00	1,432.00	1,442.00	1,438.10	1,460.28
엔/달러	81.49	77.99	78.24	78.03	77.74	77.70	77.67
달러/유로	1.33	1.37	1.37	1.37	1.38	1.36	1.36
DDR3 1Gb (1333MHz)	1.09	0.63	0.63	0.60	0.58	0.58	-
NAND Flash 16Gb (MLC)	4.84	2.94	2.97	3.00	3.01	3.01	-
CRB 지수	327.11	320.01	320.44	321.23	322.61	318.46	-
LME 지수	4,164.25	3,458.2	3,451.0	3,427.3	3,429.7	3,364.8	-
BDI	1,773	1,817	1,784	1,766	1,759	1,802	-
유가 (WTI, 달러/배럴)	89.84	94.07	94.26	95.52	96.80	95.74	-
금 (달러/온스)	1,405.90	1,765.10	1,756.10	1,791.10	1,799.20	1,791.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1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4일	252.34	252.50	0.84	0.16	0.32	274,018	101,822	-1,811
11월 7일	250.78	250.55	0.76	-0.23	0.13	315,802	105,064	3,242
11월 8일	248.32	248.95	0.73	0.63	0.32	306,176	106,469	1,405
11월 9일	249.23	250.60	0.71	1.37	0.67	308,728	105,854	-615
11월 10일	236.02	237.80	0.67	1.78	0.14	366,897	110,760	4,906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4일	4,355	50	-1,086	-1,979	661	91	-75	50
11월 7일	-4,984	1,492	2,491	2,683	-1,034	24	792	10
11월 8일	1,099	917	-2,506	-1,161	-882	-199	-148	0
11월 9일	1,574	-1,035	-231	-177	224	-135	-70	-20
11월 10일	-7,941	1,443	3,319	2,383	235	176	449	7
누적포지션	-6,436	3,026	5,647	2,850	-6,992	-359	10,421	-27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4일	678	1,033	355	578	718	140	100	315	215	9,841	6,992
11월 7일	741	416	-326	479	370	-109	263	46	-217	9,937	6,903
11월 8일	368	581	212	321	394	73	48	186	139	9,875	6,980
11월 9일	464	964	500	428	565	138	36	399	362	9,711	7,166
11월 10일	1,504	1,384	-120	1,087	771	-316	417	612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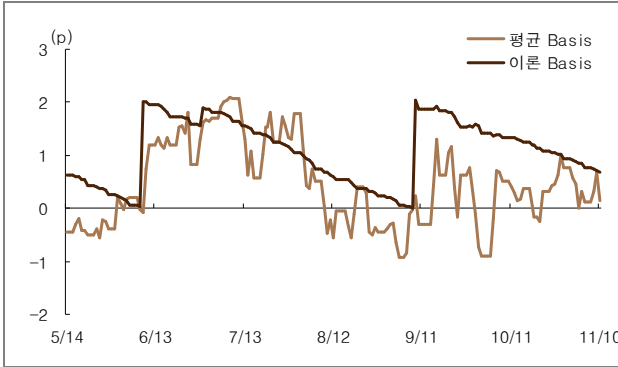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05.95	-156,395	6,552	0.01	262.50	22.25	946	-2,661	0.01
	97.39	-174,980	25,745	0.01	260.00	21.90	1,900	-13,492	0.01
	88.67	-175,516	88,599	0.01	257.50	19.45	7,758	-15,534	0.01
	79.77	-175,511	125,749	0.01	255.00	16.85	7,857	-23,144	0.01
	70.67	-101,650	439,825	0.01	252.50	14.55	9,528	-51,964	0.01
	61.35	-100,433	992,957	0.01	250.00	12.25	57,613	-84,937	0.01
	51.78	-37,874	1,824,682	0.01	247.50	9.60	93,609	-56,776	0.01
	41.90	-36,939	3,825,343	0.01	245.00	7.30	426,598	-99,601	0.01
	37.04	-17,776	4,230,934	0.03	242.50	4.75	1,435,622	-90,051	0.01
	31.88	-19,703	2,610,830	0.10	240.00	2.30	4,135,313	-114,100	0.01
	41.71	-11,546	552,500	0.84	237.50	0.52	3,592,521	-88,338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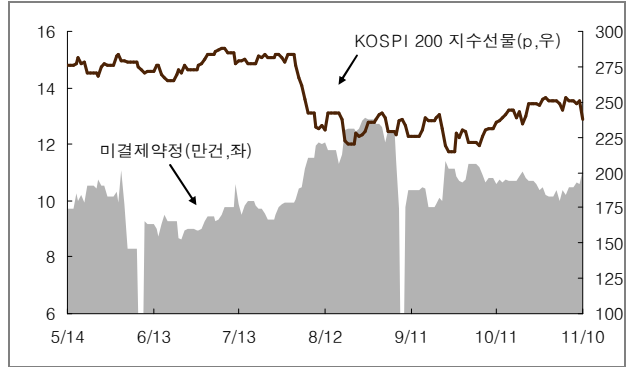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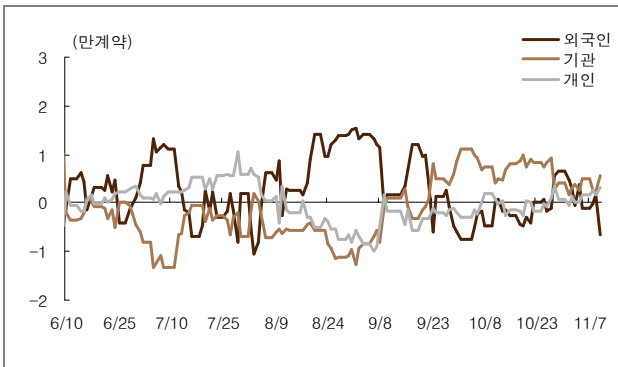
- 평균 Basis: 0.14 (전 거래일 대비 0.53 하락)
- 이론 Basis: 0.6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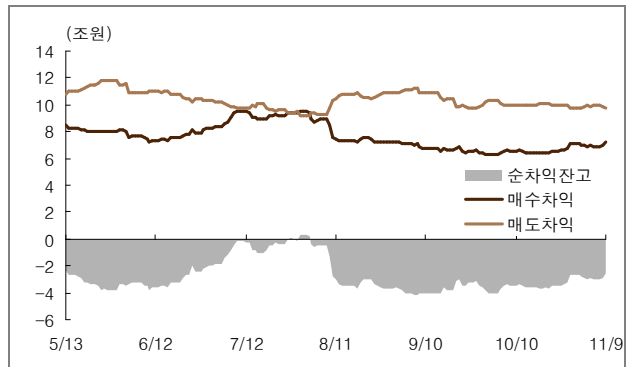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906 계약 증가한 110,760 계약
- 선물가격(237.80): 전 거래일 대비 12.8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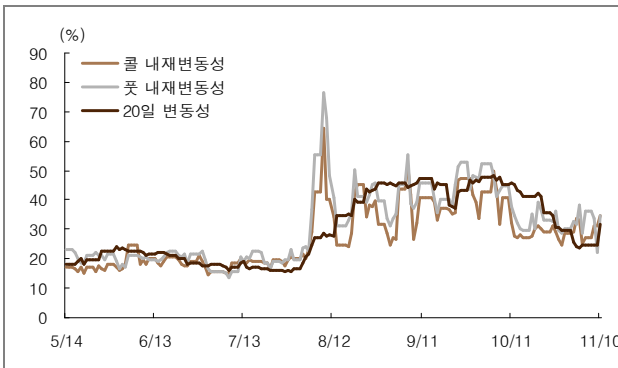
- 외국인: 7,941 계약 순매도
- 기관: 3,319 계약 순매수 / 개인: 1,443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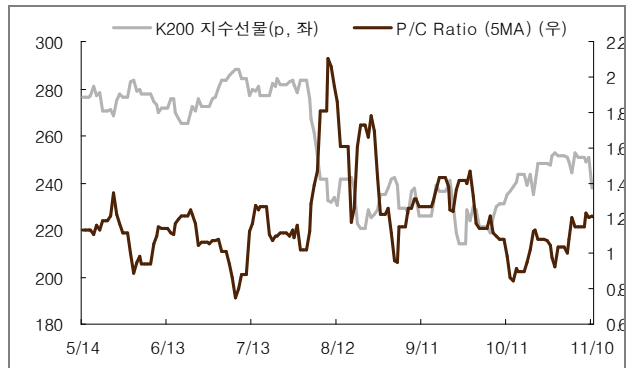
- 차익거래: 1,952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3,156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34.8% / 풋 34.5%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31.87%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21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1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1	2	3	4
<韓> 11월 BSI-제조업 (82, n/a, 86) 11월 BSI-비제조업 (84, n/a, 86) 9월 산업생산 YoY (6.8%, 4.5%, 4.8%) 9월 경기종합선행지수 (1.5%, n/a, 2.0%) <中> 9월 선행지수 (100.43, n/a, 101.83)	<韓>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9%, 4.2%, 4.3%) 10월 무역-수출 YoY (9.3%, 10.9%, 18.8%) 10월 무역-수입 YoY (16.4%, 22.3%, 29.3%) <美> 10월 ISM 제조업지수 (50.8, 52.0, 51.6) <中> 10월 PMI-제조업 (50.4, 51.8, 51.2)	<韓> 10월 외환보유액 (\$311.0B, n/a, \$303.4B) <美> FOMC 금리결정 (0.25%, 0.25%, 0.25%)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2%, n/a, 4.9%) 10월 ADP 취업자 변동 (11.0만, 10.0만, 9.1만) <유럽> 10월 PMI-제조업 (47.1, 47.3, 47.3) <日> 10월 본원통화 YoY (17.0%, n/a, 16.7%)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9.7만, 40.0만, 40.2만)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52.9, 53.5, 53.0) 9월 제조업수주 MoM (0.3%, -0.2%, -0.2%) <유럽> G20 정상회담 ECB 금리 결정 (1.25%, 1.50%, 1.50%) <中> 10월 PMI-비제조업 (57.7, n/a, 59.3)	<美>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8.0만, 9.5만, 10.3만) 10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10.4만, 12.5만, 13.7만) 10월 실업률 (9.0%, 9.1%, 9.1%) <유럽> 10월 PMI-서비스 (46.4, 47.2, 47.2)
7	8	9	10	11
<美> 9월 소비자신용지수 (\$7.4B, \$5.2B, \$-9.5B) <유럽> 1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21.2, -20.0, -18.5) EU 재무장관 회의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0.2, 90.0, 88.9) 실적발표> <韓> 락앤락, 에스에프에이, 태광	<韓> 10월 실업률 SA (3.1%, 3.3%, 3.2%)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0.3%, n/a, 0.2%)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5.5%, 5.5%, 6.1%)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5.0%, 5.8%, 6.5%) 10월 산업생산 YoY (13.2%, 13.4%, 13.8%) 10월 소매판매 YoY (17.2%, 17.6%, 17.7%) 실적발표> <韓> CJ E&M, 대림산업, GS글로벌, 현대상사, 대우인터내셔널 <美> GM, 랄프로렌, 시스코, 메이시스	<韓>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5.6%, n/a, 5.7%) 10월 은행가계대출 (451.8조, n/a, 448.7조)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40.0만, 39.7만)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12.3%, 13.4%) 9월 무역수지 (n/a, \$-46.0B, \$-45.6B) <유럽> BOE 금리 결정 (n/a, 0.50%, 0.50%) <中> 10월 무역-수출 YoY (15.9%, 16.1%, 17.1%) 10월 무역-수입 YoY (28.7%, 22.2%, 20.9%) <日> 9월 기계수주 YoY (9.8%, 10.6%, 2.1%)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 (38.6, 39.0, 38.6) 실적발표> <韓> NHN, 엔씨소프트, 롯데쇼핑 <美> 노드스톱	<韓> 금통위 금리결정 (n/a, 3.25%, 3.25%) <美> 1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n/a, 61.5, 60.9) <中> 10월 신규 위안 대출(미확정) (n/a, 500B, 470B) 10월 통화공급-M2(미확정) (n/a, 13.1%, 13.0%) 실적발표> <美>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14	15	16	17	18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中> 10월 실제 FDI YoY(미확정) <日> 3Q 명목 GDP QoQ 9월 산업생산 YoY 실적발표> <韓> 동양기전, 빙그레 <美> JC페니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0월 소매판매액지수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실적발표> <韓> 한라공조, 송원산업, 에스엠 <美> 월마트, 델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0월 산업생산 MoM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日> BOJ 금리결정 실적발표> <美> 타겟	<韓> 10월 백화점 매출(미확정) 10월 할인점 매출(미확정)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주택건설 착공 MoM 10월 건축 허가 MoM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미확정) 실적발표> <韓> 키움증권, 네오위즈게임즈	<美>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실적발표> <韓> 강원랜드 <美> 갭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KIS Research, Bloomberg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